

## 2024 년월일 “(성탄절) 기다려온 사랑의 왕”(눅 1:30-33)

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랑의 왕의 탄생(오심)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.

### [1] 누가 참된 왕일까요?

구약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인간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더 좋다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간청하여 사울이 초대왕이 되어 왕권국가를 시작했습니다.

그러나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왕들은 나쁜 왕으로 평가받았습니다(열왕기하). 남 유다에 몇 좋은 왕들이 있었을 뿐입니다. 백성들은 이런 왕조를 지내면서 참 왕이신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습니다.

참 왕은 사랑과 정의로 통치합니다. 정의란 사회 안에 착취가 없고, 약자를 존중하는 상태입니다. 따라서 정의는 사랑의 일면입니다. 참 왕은 인간의 진정한 필요인 사랑을 채워주는 희망의 존재였던 것입니다.

### [2] 왜 사랑의 왕이어야 할까요?

‘예수’라는 이름은 ‘하나님은 도움(구원)’이시라는 뜻을 지닙니다. 모든 사람은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데,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돕기에 합당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.

하나님은 떠나간 인간들을 다시 사랑으로 품기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, 그분을 통해 인격적인 사랑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.

기독교는 지난 2,000 년 동안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려 애썼지만, 결국 교회를 지켜온 힘은 예수님이 ‘참 사랑의 왕’이라는 성도들의 고백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.

오늘날도 교회를 온전히 지키는 길은 예수님을 사랑의 왕으로 고백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.

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우리를 살게 하심으로 증명되었으며, 이 사랑에 힘입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(요일 4:9,11).

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성취된 시대가 시작된 날입니다. 이제 성취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의 왕으로 모시고, 그분의 백성으로 기뻐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.

### [나눔의 질문]

1. 나는 진정으로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며, 그 필요를 채워 주실 분은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까?
2. 2024 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랑의 경험이 있었다면 나누어 봅시다.